

국민의당 통합찬반과 '마이웨이 강행'

국민의당 내 통합파와 통합 반대파가 각각 마이웨이를 강행하면서 양쪽 진영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와 공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통합 반대파는 개혁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며 발기인대회, 시도당 및 중앙당 창당 일정까지 내놓은 상황이다.

개혁신당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당 로드맵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창추위) 대표를 맡고 있는 조배숙 의원은 이날 "2월4일 전당대회에서 보수대야합 합당을 총력 지지하겠다. 끝내 강행한다면 곧바로 2월5일과 6일 오전에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2월8일 오후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창추위 측은 이날부로 시·도당 창당을 본격 진행하고 발기인과 당원 모집 및 당명공모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조 의원은 "중앙당과 시·도당 지역위원회를 결성하고 당 조직을 선거지원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겠다. 6월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의 돌풍을 일으키겠다"고 말하는 등 전당대회 지지보다는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과 공동 행보 이어가 반대파, 개혁신당 창당 공식화...4당 체제 개편

창당에 무게감을 둔 듯한 발언을 했다.

창당에 참여하는 의원도 18명이 고 원의 지역위원장들 규모도 33명이나 된다며 원내교섭단체 구성도 문제없다고 자신했다.

안 대표는 이날 유 대표와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8일 공동 통합선언 당시 밝히지 못한 내용 등을 편한 분위기에서 전하겠다는 취지로 국회 내가 아닌 서울 여의도 소재 커피숍에서 자리를 가진 것이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발기인 대회까지 하겠다는데 이것이야말로 분당을 공식화하는 것"이라며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당 대표로서 필요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안 대표는 "그렇게까지 안 되길 바란다.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라며 "창당하려면 나가서하는 게 도의 이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및 더불어민주당과의 2단계 통합은 없다" "통합은 제대로 된 야당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해결의 주도권을 갖는 진정한 야당이 되기 위해서" 등의 해명을 보였다.

창추위 측은 이러한 안 대표의 발언에 반박했다. 도를 넘은 사람이 누구냐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발언을 쏟아냈다.

창추위 공동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당내 절반의 국회의원들은 안철수의 보수야합 추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안철수 사퇴, 개혁신당 창당을 결의했다"며 "당을 거수기로 만들고 정당 민주주의를 짓밟고 당과 호남을 보수 세력에게 헌납하려는 자의 변명치고는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또 안 대표를 향해 "협조만 쓰지 말고 제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개혁신당 창당에 참여하는 의원들

중 비례대표로 묶여있는 이들의 출당 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안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제명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비례대표는 총선 민의에 의해 선택된 당의 자산"이라며 "그것을 (당 대표) 마음대로 어떻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양쪽 진영이 평행선 행보가 지속되면서 국민의당발 정계개편이 실현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원내 제당을 유지하고 있는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신당,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인 개혁신당파 등 4당 체제로의 개편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내달 4일 전당대회에서 통합안건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당내 개혁신당파의 지지 움직임도 있지만 사실상 어려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바른정당은 국민의당 전당대회 후 당원대표대회를 통해 통합을 의결한다. 당내 찬반 갈등이 없는 만큼 바른정당에서의 통합 안건 처리는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준표 "지방선거, 17중 6곳 이상도 가능...의원차출 없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6월 지방선거에 대해 "17곳 중 6석은 마지노선이고 지역을 돌아보니 더할 수도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홍정욱 전 의장의 불출마선언으로 인재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선거를 하지 않는다"면서도 "서울시장 후보군에 다른 사람도 있다. 홍 전 의원은 원오브them(they) 몇 중 한명"이라고 많은 후보군이 있음을 시사했다.

홍 대표는 대구시장 선거의 중요도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정은 내취도 회복할 기회가 있지만 대구시장을 내주면 한국당은 문을 닫아버린다"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 장관이 출마여부를 고심하는 모양인데 3월 13일 공직사퇴의 마지막 시한이고 우리는 그걸 지켜보고 후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론했다. 홍 대표는 최근 본인이 대구북구를 당협위원장인 된 것과 관련 "내가 당협위원장 맡은건 지방선거용"이라며 "저는 총선엔 출마하지 않는다. 지방선거 끝나고 적절한 시기에 대구를 이끌어갈만한 후배 영입하고 나는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 대표는 본인의사가 없는 현역의원 차출을 없을 것이란 뜻을 확실히 했다.

그는 "야당이든 보(정부여당의) 보복이 두려워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전국적으로 우리당 후보가 될 만한 분들에게 대한 내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그래서 인재난을 겪고 있지만 현역의원 차출은 본인 스스로 나오지 않는 한 차출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역의원을 차출 안 해도 외부에서 선거 이길만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분위기가 달라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고 현재 (제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뉴시스

김태년, '순천 잡월드 문제삼지 말라' 민원 쪽지 논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민원 쪽지를 건네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당정협의 중 김 장관과 귀속말을 하다 김 장관 책상에 놓인 종이에 순천 잡월드순천만 잡월드) 문제삼지 말아주세요, 김태년 사업 이라고 써 건넸다.

순천만 잡월드는 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잡월드가 김 의원의 고향인 순천시에 조성을 추진 중인 학생직업 체험시설로 국비 240억원 등 총 48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당정협상에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말하는 장면도 언론에 포착됐다.

뉴시스

안철수, 개혁신당과 징계 착수...오늘 당무위 소집

당대표 권한 당원권정지 조치 가능성도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안철수 대표가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사무총장, 이태우 청년 최고위원, 안 대표, 장진영 최고위원. 안 대표는 통합 반대파의 신당 창당 발표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당 대표로서 원칙과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바른정당 통합에 반대하는 개혁신당파 의원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써 징계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개혁신당파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안 대표는 이날 '해당행위에 대한 대책 논의의 건을 안건으로 오는 23일 오후 3시 당무위를 소집했다. 아울러 국민의당 당무감사국은 이날 오전 개혁신당파 소속 일부 의원들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개혁신당 창당발기인대회 합류 여부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안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파의 창당 작업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헌당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그는 전날인 21일에도 "당대표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때문에 안 대표는 23일 당무위에서 '특단의 조치' 차원으로 실제 개혁신당파에 대한 징계를 추진할 것

으로 보인다. 특히 일각에선 안 대표가 당대표 권한인 비상징계를 통해 개혁신당파 의원들에 대한 최대 수위 비상징계인 당원권 정지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앞서 안 대표는 박주원 전 최고위원의 DI(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허위제보 논란에 대해 당원권 정지 비상징계를 추진한 바 있다.

개혁신당파 의원들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당원권으로서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고 전당대회에서의 필리버스터 등의 결 지지 활동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전당대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상돈 의원의 경우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직인 전당대회 의장직도 수행할 수 없다. 안 대표 입장에선 무리하게 의장을 교체하지 않고도 징계를 통해 자연히 전당대회 진행을 주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당자기기운동본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이와 관련 "절반이 넘는 소속 의원들과 수많은 당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강행하는 게 해당행위 아닌가"라며 "안 대표 본인의 자기당착"이라고 반박했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